성적도 1위·흥행도 1위…탄탄대로 달리는 도로공사

성적·흥행 양 날개…도로공사의 비상

평균관중 1위…성적 좋자 관중 더 늘어
시 지원 힘입어 수도권 구단 흥행 압도

도로공사 김삼현 운영팀장은 17일 IBK기업은행과의 1·2위 맞대결을 거의 못 봤다. 김천실내체육관에 늘어선 팬들의 줄은 2세트까지 줄어들지 않았다. 이날 6823명의 관중이 몰렸는데 이는 도로공사가 김천으로 연고지를 옮긴 뒤 최다 기록이었다. '도드람 2017~2018 V리그' 남녀부를 통틀어서도 시즌 최다 관중이었다. 여자부 시즌 2위 기록도 도로공사의 것(2017년 12월 31일 흥국생명전·5560명)이었다.

도로공사는 아직 두 번의 홈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홈 13경기 만에 총 관중은 4만2774명에 달한다. 평균관중은 3290명이다. 같은 기간 여자부 6팀 중 흥행 2위(IBK기업은행 총 관중 2만7695명·평균관중 2130명)와 비교하면 도로공사의 티켓파워를 짐작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티켓 판매만에 있어 최소 1억원을 확보했다. 김천시가 경기당 1000장의 표를 선구매해주기 때문이다. 홈 15경기에 7000원짜리 티켓 1000장이 무조건 팔리는 구조다. 성적(1위)이 맞물리자 그 이상의 유료관중이 발생하고 있다. 김 팀장은 "KB손해보험이 떠난 구미에서도 배구장을 찾는다. 주말 경기는 김천 바깥의 유입 관중 비율이 최고 30%까지 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유니폼에 붙는 하나은행 등 스폰서 수입도 8억원이다. 김천시는 배구장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익, 운영수익도 손대지 않는다. 여기서도 수 천만 원이 나온다. 김천실내체육관 전기료와 방한비로 지출이 발생하지만 이것도 김천시의 배려로 60% 할인 우대를 받는다.

현재 여자프로배구 샐러리캡은 13억원이다. 물론 운영비용 등을 합치면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많이 번만큼 모기업 부담금이 타 구단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이다.

도로공사는 본사를 따라 2015~2016시즌부터 김천으로 옮겼다. 이주 첫 시즌부터 평균관중 1999명(여자부 1위)을 찍었다. 2016~2017시즌 최하위를 했음에도 관중은 더 늘어난 1위(평균관중 2347명)였다. 성적까지 확 달라진 이번 시즌은 총 관중 5만 명까지 기대할 추세다. 굳이 수도권을 비집고 들어가지 않아도 흥행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모범사례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도로공사는 여자프로배구에서 성적과 흥행, 양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다. 지방도시인 김천에서 오히려 더 뜨거운 호응과 지원을 끌어내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스페셜

young with 청춘스포츠

스포츠동아와 청춘스포츠가 1929(19~29세) 세대 객원기자들과 함께 만드는 젊은이 페이지 'YOUNG' 섹션을 운영합니다. 'YOUNG' 객원기자들은 뜨거운 젊음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스포츠를 위해 활활 태우며 살아가는 '스포츠 덕후'들입니다. 마니아를 넘어선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사랑, 전문가 못지않은 풍부한 지식과 정보력, 그리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발랄한 문체로 스포츠의 읽는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초고교급 가드' 박지현 "박혜진 언니가 롤모델"

〈숭의여고〉

WNBA 캠프 초청·U19 대표팀 활약 등
2018 신인선수 드래프트 '최대어' 주목

2018 WKBL 신인 선수 선발회는 주목할 만한 자원들이 많다. 인성여고의 이소희, 이주연(삼성생명)의 동생 이채은을 비롯해서 재능있는 자원들이 대거 등장한다. 이 드래프트에서 최대어로 주목받고 있는 선수는 바로 숭의여고의 박지현이다.

박지현은 최근 여자농구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바로 WNBA에서 주최하는 농구 글로벌 캠프에 초청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WKBL의 미래로 불리는 박지수(KB스타즈)도 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다. 농구의 본고장 미국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박지현의 실력은 검증이 끝났다.

지난 시즌 국내 무대에서 박지현의 적수는 없었다. 180cm의 큰 키에도 일반 가드들보다 낮고 빠른 드리블, 스피드와 외곽슛을 모두 갖춘 박지현에게 상대팀 선수들은 애를 먹었다. 특히 주말리그 왕중왕전 대전여상과의 경기에서는 고교부에서 거의 볼 수 없는 트리플더블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박지현의 활약에 힘입어 숭의여고는 지난해 주말리그와 전국체전에서 여고 최강자리에 올랐다. 박지현의 활약은 국가대표무대에서도 이어졌다. U19 대표팀에 막내로 뽑혔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뛰며 득점과 어시스트, 리바운드 등 전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에이스 이주연과 함께 대표팀을 이끌었다.

박지현의 활약 비결은 꾸준한 자기 관리였다. 박지현은 "중학교 때 WKBL에서 후원하는 미국 캠프에 다녀온 이후 스킬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때 배운 스킬을 잊지 않기 위해 주말마다 스킬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 또 퍼포먼스 트레이닝 센터 '엑시온'에서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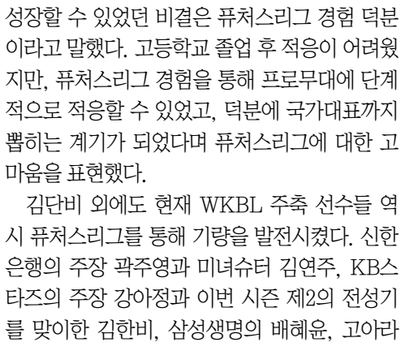
박지현은 지난 시즌 전 포지션을 소화했다. 수비할 때는 센터 포지션을 맡았고 공격할 때는 3번 포지션을 맡으며 스윙맨 역할을 했다.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박지현이지만 프로에서는 가드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박지현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3번 포지션에 가장 편하지만 프로와 고교무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프로 무대에서는 가드 포지션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현의 롤모델은 우리은행의 특급 가드 박혜진이다. 박지현은 "박혜진 언니는 슛, 패스, 돌파, 수비 등 모든 부문에서 최상급의 기량을 갖고 있다. 프로무대에서 언니같이 팀에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선수로 성장하고 싶다"라며 동경심을 드러냈다.

프로 진출을 앞둔 올해는 박지현의 농구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박지현은 "많은 분들이 숭의여고가 무패 우승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지난 시즌처럼 열심히 준비해 무패 우승을 달성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프로에 가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정엽 객원기자 ranstar1997@naver.com



국제무대에서도 경쟁력을 보인 박지현. 사진제공 | FIBA

봄농구부터 아시안게임·농구월드컵까지 '쉴 틈이 없네'

미리 보는 2018 WKBL

PO 진출 팀 윤곽…치열한 봄농구 예고
8월 AG·9월 월드컵 국제대회 잇따라

챔피언 자리를 놓고 펼치는 봄농구. 그리고 국제대회까지. 여자농구의 2018년은 특별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 2017~2018 여자프로농구도 정규리그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다. 지난 15일, 삼성생명과 KDB 생명의 경기로 6라운드를 마감한 여자프로농구는 이제 팀 당 5경기씩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규시즌은 끝나가지만, 2018년 여자농구는 이제 시작이다. 정규리그 시상식부터 챔피언 자리를 놓고 다투는 PO, 그리고 이어지는 아시안게임과 여자농구 월드컵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6라운드가 종료된 현재, PO 진출팀의 윤곽은 가려졌다. 통합 6연패에 도전하는 우리은행이 KB스타즈의 추격을 뿌리치며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지난 시즌 통합 MVP(정규리그+챔피언결정전)를 차지한 박혜진과 지난해 FIBA 여자농구 아시아컵에서 발군의 기량을 뽐낸 임영희, FA로 영입한 김정은으로 이뤄진 빅3가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통합우승을 향해 순항 중이다.

6개 구단 중 유일하게 우승 '별'이 없는 KB스타즈는 마지막 반전을 꿈꾼다. 프로 2년차를 맞아 원숙한 기량을 뽐내고 있는 박지수와 외국인 선수 단타스로 이뤄진 트윈타워는 어느 팀에게나 부담으로 다가온다. 수년간 WKBL 무대를 밟은 모니크 커리와 주장 강아정 등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은 시즌 내내 승부처에서 중요한 득점을 올리며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했다.

지난해 스페인 여자농구월드컵 티켓을 따낸 여자농구 대표팀. 사진제공 | WKBL

오랜만에 PO 무대에 복귀한 신한은행은 옛 영광 재현을 노린다. 신한은행은 2007년 겨울리그부터 2011~12 시즌까지 6년 연속 통합우승을 하며 왕조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최근 2시즌 연속 PO 진출에 실패해 여자농구 명가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이번 시즌에는 김단비와 쏜튼의 스피드한 농구와 그레이의 높이가 더해지며 PO 막차를 탔다. 김단비, 김연주 등 PO 진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많은 만큼 PO에서 업셋(Upset) 기적을 노린다.

PO가 끝나면 6월까지 잠시 휴식기를 가진 뒤 여자농구는 7월부터 다시 달린다.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여자농구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이다.

연속되는 국제대회가 열리는 올해, 여자농구 대표팀은 4년 전과 달리 정상급 전력으로 국제대회에 나설 예정이다. 2014년 아시안게임과 농구월드컵의 일정이 겹쳐 전력을 이원화 시켰지만, 올해는 일정의 차이가 있는 만큼 정상급 전력으로 두 대회 모두 경쟁력을 갖췄다.

여자농구월드컵이 끝나면 시즌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여자농구 팬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여자농구를 끊임없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보람 객원기자 hughandong@naver.com

제2의 김단비 꿈꾼다…퓨처스리그 유망주들

김단비도 성장 비결로 퓨처스 경험 꼽아

제2의 김단비를 꿈꾸는 미래의 스타들이 퓨처스리그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WKBL 퓨처스리그 우승팀이 가려졌다. 1군 리그에서도 우리은행과 함께 우승경쟁을 펼치고 있는 KB스타즈가 3시즌 만에 우승트로피를 차지했다. MVP는 입단 후 6시즌 만에 퓨처스리그에서 본인의 잠재력을 발휘한 김한비가 뽑혔다.

1998년 출범한 WKBL에서 퓨처스리그가 시작된 건 지난 2004년이다. 시즌 중 입단하는 신인 선수들의 리그 적응을 돕고, 종목 특성상 출전시간이 제한되는 벤치 멤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퓨처스 리그를 마련했다. 한 번의 기회가 절실한 선수들이 뛰는 경기인 만큼, 퓨처스리그는 1군 경기 못지않은 긴장감과 치열함을 보인다.

이런 취지에 걸맞게 퓨처스리그를 통해 WKBL 스타로 성장한 선수가 있다. 바로 WKBL 대표 스타, 신한은행의 김단비다. 지금은 WKBL을 대표하는 스타로 성장했지만, 김단비 역시 입단 당시에는 기회를 잡지 못하는 유망주에 불과했다. 특히 입단 당시 소속팀 신한은행이 막강한 전력을 과시하며 통합 5연패를 기록했던 만큼, 1군 무대에선 출전 기회를 잡기 어려웠다.

1군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던 김단비는 퓨처스리그를 통해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2008년부터 퓨처스리그 코트를 밟은 김단비는 첫 해 블록 1위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김단비의 기량이 만개한 건 이듬해인 2009년이었다.

2009년 김단비는 득점, 블록, 스틸 부문 3관왕을 차지하며 MVP와 BEST 5에 오르며 퓨처스리그를 지배했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김단비는 당시 신한은행 세대교체 중심으로 활약할 수 있었다.

퓨처스리그 MVP 김한비

김단비 본인도 퓨처스리그 경험은 소중했다. 지난 2015년 네이버 S매거진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퓨처스리그 경험 덕분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적응이 어려웠지만, 퓨처스리그 경험을 통해 프로무대에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고, 덕분에 국가대표까지 뽑히는 계기가 되었다며 퓨처스리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김단비 외에도 현재 WKBL 주축 선수들 역시 퓨처스리그를 통해 기량을 발전시켰다. 신한은행의 주장 곽주영과 미녀슈터 김연주, KB스타즈의 주장 강아정과 이번 시즌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김한비, 삼성생명의 배혜윤, 고아라 등 현재 각 팀 핵심 전력들이 퓨처스리그를 발판으로 성장했다.

이번 시즌 역시 WKBL 미래로 불리는 선수들이 코트에서 활약했다. 삼성생명의 이주연·윤예빈 KEB 하나은행의 김지영 등 프로에서 가능성을 보인 유망주들이 퓨처스리그를 통해서 1군 전력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퓨처스리그를 통해 조금씩 1군 무대의 장벽을 넘고 있는 유망주 선수들 중 김단비처럼 WKBL을 주름잡는 스타가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허보람 객원기자